

하나님의 마음

God's Heart

디모데전서 2:1-4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3월 25일 설교

¹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²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³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⁴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조국을 위한 기도

우리가 조국을 생각할 때 기대되는 것도 있고 걱정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걱정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게 뭡니까? 아무래도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하는 거지요. 요즘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쏜다 어쩐다 해서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만 서해 교전이 났을 때도 그렇고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그렇고 뭐가 터졌다 하면 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전에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하고 북한을 악의 축이라 부를 때는 이러다가 미국이 북한도 공격하는 게 아닌가 하고 마음이 참 불안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치면 그건 미국하고 북한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동족상잔이 다시 나는 겁니다. 수많은 동족이 죽어갈 것이고 조국은 다시금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는요? 우리도 죽지요. 조국이 잿더미가 됐는데 목숨 붙어 있다고 사는 거겠습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 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것지요. 세상이 본디 그러니 그 사람들 탓할 것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적어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전쟁은 곧 멸망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남한에서 났든 북한에서 났든 아니면 이 미국에서 나서 자랐든 한국인의 피를 조금이라도 받은 사람이라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기를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독재가 밍고 김일성 삼대가 아무리 보기 싫어도, 그 보기 싫은 사람 죽이자고 어떻게 같이 죽자 하겠습니까?

전쟁이 뭡니까? 전쟁은 죽음입니다. 총, 대포, 장갑차, 전투기, 미사일, 폭탄, 이거 다 사람 죽이자고 만들어서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 데 씁니다. 전쟁은 파괴입니다. 집도 부수고, 차도 부수고, 도로나 다리도 파괴합니다. 전쟁이 지나가면 논도 밭도 공장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 미국에서는 못 느낍니다. 워낙 강대국이고 전쟁을 해도 남의 나라에 가서 하기 때문에 몸으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경제가 좀 어렵다,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조국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그건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하고는 아예 다른 차원이 될 겁니다. 좁은 땅에 빌딩 높이 지어 놓고 뽕뽕하게 모여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핵무기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전쟁을 한다면 그건 민족의 자멸일 뿐 아니라 온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보다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좋아한 이유도 그걸 통해 한반도의 긴장이 많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정주영씨도 썩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소 물고 북한으로 간 그 일은 정말 잘 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개성공단도 참 소중하고 금강산 관광도 얼른 다시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대화도 주고받아야 되고 사람도 왔다갔다 해야 되고 돈도 자꾸 오고가야 평화가 옵니다. 서로 뺄 수 없도록 얽혀버려야 싸움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가 정권을 잡든 끝지 말고 자꾸 왕래할 수 있기를, 그래서 서로 더 알고 더 친해지고 그래서 전쟁의 가능성이 아예 없어져 버리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 통일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소중한 평화

우리는 다 평화를 바랍니다. 평화는 말 그대로 조용한 것입니다. 싸움이 나면 시끄럽습니다. 소란하지 않고 조용히 사는 게 평화입니다. 늘 하던 일 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게 평화입니다. 평화가 있을 때는 일상생활이 곧 모든 것입니다. 먹고, 입고, 자고, 누고, 일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학문도 있고 문화도 있고 휴식이나 오락도 있습니다. 창조가 있고 생산이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보람도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일상이 아닌 비상입니다. 전쟁이 나면, 그래서 비상 상태가 되면, 평소 일상이라 부르던 것들은 다 뒷전으로 물러나고 맙니다. 워낙 시급한 일이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그 일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일상이고 뭐고 없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우리 일상은 흐트러지고 맙니다. 전쟁 중인 나라가 경제가 되겠습니까? 경제법칙도, 경제의 흐름도 다 엉망이 되고 맙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난살이에도 학교는 있지만 평소 하던 알찬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사회생활도 인권도 복지도 다 뒷전이 되고 맙니다. 전쟁이 나면 연속극도 못 보고 프로야구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모두가 얼른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평상시대로, 정상적으로 사는 게 가장 창조적입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독립된 내 나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친일파가 다 청산됐는지 아니면 남아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논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복입니다. 쿠르드족 보십시오. 인구가 이천만 명이나 되는데도 터키에 눌러 제 나라를 못 가지다 보니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도 독립투쟁에 목숨을 바칩니다. 아직 광복이 안 되었다면 우리 겨레의 수많은 젊은이들도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이런 분들이 하신 일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티베트에서는 몇 달째 분신자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꼬마들은 학교 가야 할 시기에 자살폭탄테러를 연습합니다.

폭력도 나라와 겨레를 위한 일이라면 보람은 있겠지만 창조적이지는 않습니다. 건설적이지도 않습니다. 인류에 주는 도움도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희생을 한 분들 덕분에 독립된 내 나라가 있으니 우리가 다 보다 진취적이고 보다 건설적인 일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한류가 지금 아시아와 유럽을 휩쓸고 있다 하는데 내 나라가 있고 평화가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삼성, 엘지, 현대, 다 평화가 있기에 승승장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광복은 아직 반쪽이라 여전히 소모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창조력 넘치는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 두 해 또는 세 해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썩는다” 하지 않습니까? 참 평화가 오고 통일까지 온다면 그 값진 세월을 학교에서 공부하고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사회에 나가 봉사하고 일터에서도 젊은 에너지를 통해 멋진 일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평화 가운데 바로 산다

죽음과 파괴를 막기 위해, 또 보다 창조적인 삶을 위해 우리는 평화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화를 바라는 뜻은 또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를 바라는 뜻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뜻은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우선 이미 주 예수를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삶은 경건하고 단정한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하게 사는 삶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입니다. 단정은 진지하고 예절바른 삶을 말합니다. 경건하고 단정한 삶은 일상생활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평화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시국이 비상시국이면 옳고 그름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른 삶을 살기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비상시국에는 그 비상 하나 빼고는 진지할 수도 없습니다. 여차하면 목숨이 날아갈 판인데 예절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고요와 평안은 마음의 평화를 가리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쟁이 나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 그런 평화도 세상일을 외면하고 마냥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마음의 평화도 귀하지만 바깥세상이 평화롭도록,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이 그 평화를 누리도록 애쓰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게 화평케 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전쟁터에 가도 물론 윤리가 있고 전쟁터에도 사랑이 있고 믿음과 순종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경건과 단정함은 우리 안과 밖이 평화로울 때 가능합니다. 전쟁터에서도 성경 읽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거룩함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일 역시 전쟁이 끝나 일상이 되찾는 그날까지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은 늘 있는 거라 귀한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와 함께 예배하고 사귀는 일, 참 복된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면 언제든지 성경 펴 읽을 수 있고, 기분 내킬 때마다 찬양도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시간 내어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귀한 삶인지, 얼마나 값진 일상인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비상시국이 되면 이게 다 뒷전이 되고 맙니다. 가정에서도 평화가 깨지면 말씀도 기도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도 사라지고 맙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평화가 꼭 있어야 합니다.

평화 가운데 전도한다

평화는 이미 믿은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절대 필요합니다. 물론 전쟁 났다고 전도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전쟁 때문에 불안해서, 또 전쟁의 혼란 통에, 전도가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평화로울 때 오히려 그 값진 평화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게으름이나 방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옛날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할 생각은 없고 자기들끼리만 즐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큰 박해를 통해 사람들을 흠어지게 하셨고 그래서 복음이 더 빠른 속도로 전파된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1-11:30). 하지만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혼란받아 그리스도

의 제자가 되는 것도 전쟁이 없을 때, 비상시국이 아닐 때, 평화 가운데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일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평화 가운데 사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비상이 아닌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일상 전체를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도리라는 뜻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따지고 보면 하납니다. 우리가 평화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그제 곧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또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 때 말씀과 기도와 교회생활을 통해 우리 믿음도 자라지만 그런 믿음을 통해 이웃에게 전도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전쟁이나 혼란보다 평화를 통해 더욱 잘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기간으로 파스로마나 (Pax Romana)를 으뜸으로 꼽습니다. 로마제국시대, 주전 27년부터 주후 180년까지 거의 이 세기 동안 이어진 이 평화의 기간 동안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겠습니까? 바로 기독교 복음이 로마 곳곳에 전파된 일입니다. 파스로마나를 주도한 뛰어난 다섯 황제가 다 기독교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고 심하게 박해한 황제도 있었지만 정치를 잘 해 태평성대를 이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복음에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평화 이백 년은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 마련하신 기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국을 생각하며

우리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왜 합니까? 전쟁이 나면 사람이 죽고 모든 게 파괴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쟁이 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 그렇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평화 가운데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국의 영적 상황을 생각해 볼 때 평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오늘도 너무나 절실합니다.

우리가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늘 빠지지 않는 기도제목이 북한 동포의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래서 북한 동포들도 우리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조국에 평화가 오고 통일이 오면 우리 겨레가 발전할 것입니다. 경제도 번영하고 문화도 융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돈 벌고 문화의 힘을 길러 그걸로 이웃 어떤 나라처럼 우상 섬기고 죄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민족이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이니까 우리 민족이 잘 되면 좋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어야 좋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신난다 한다고 우리까지 덩달아 춤추는 건 곤란합니다.

우리 조국의 반쪽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북한의 수도 평양은 나라가 두 동강 나기 전만 해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신앙의 도시였습니다. 북한 지역 곳곳마다 교회 없는 마을이 없었고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다들 한글도 배우고 공부도 했습니다. 한국교회를 빛낸 수많은 믿음의 거성들이 북한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온 지도자들이 남한 교회도 많이 키웠습니다. 그렇던 북한이 지금은 하나님을 깡그리 잊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지, 온 국민 머리에서 하나님을 썩 지우고 그 자리에 공산주의사상, 김일성 사상을 뿌리 깊게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북한 동포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삼대 아래 신음하다가 영원한 파멸의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동족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문만 열려 있어도, 전도할 수만 있는 곳이어도,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다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지금도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비집고 들어가려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기준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퍼주었다 어쩔다 말들이 많은데 그게 좋으나 나쁘나 판단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다른 기준, 곧 영혼의 구원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면 들어갑니다. 식량도 갖고 가고, 공장을 지으러도 들어가고, 린튼 박사처럼 아픈 사람 고치러도 들어가고, 평양과학기술대학을 합작으로 만들어 또 들어갑니다. 돈도 가고 사람도 가고 성경책도 갑니다. 금강산 길이 막혀 답답하지요. 다음 달부터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국이 맡아 한다는데 이걸 문이 열리는 건지 아니면 조금 열렸다가 팡 닫혀 버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빗장을 하나씩 풀어야 하는데 발목 잡는 일이 많아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개성공단이 일단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공단을 자꾸 만들면 좋겠는데 이번 한미 FTA에서 개성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을 못 받아 그것도 참 아쉽습니다.

평화의 문이 열리면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몰래 담을 넘어 들어가서도 전도할 수 있지만 열린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으면 훨씬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더 바랄 것도 없지만 무리하게 통일하려 하다가 둘 다 망할 수도 있다고 하니 일단은 문을 조금씩 조금씩 더 열게 만들고 돈도 왔다갔다, 사람도 왔다갔다,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을 주 예수께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국을 위한 기도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 특히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합니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국무총리를 위해 기도하고, 장관을 위해 기도하고, 국회의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큰 기업체 사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당을 위해서만 아니라 야당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한국의 지도자뿐 아니라 강대국 특히 미국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평화의 열쇠를 그 사람들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무능력해서 전쟁이 나기도 하고 지도자가 나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그 지도자를 꼭 붙잡아 달라고, 지도력도 주시고 좋은 마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무엇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대해 심판하실 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윗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전에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잘 써먹었습니다. 권세에 복종하라 하는 로마서 13장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연결해서, 지도자를 거역하는 건 하나님 뜻을 어기는 일이라 하면서 무조건 복종만 하라 하였습니다. 본문의 뜻을 잘 모르면 그런 억지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초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위해 평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도자를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만약 평화가 구원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참 평화가 아니요, 우리가 기도할 바도 아닙니다.

사장이 종업원의 노동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겉으로는 평화로운 듯 보여도 사실은 평화가 아닙니다. 종업원 마음에는 이미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 꺾대기 평화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옛날 한국의 독재정권 시절 예수 믿는 사람이 민주화 투쟁에 앞장을 섰습니다. 투쟁이니까 평화를 깨는 것 같지만 사실은 꺾대기 평화를 깨뜨리고 참 평화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독재 아래 인권이 유린되고 사람이 죽어 가는데 그게 무슨 평화며 거기서 무슨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도 지도자를 위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참 목표는 영혼의 구원이니 꺾대기 평화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결국 조국을 위한 기도는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민족이 부자가 되게 해 달라, 강대국이 되게 해 달라, 문화가 융성하게 해 달라, 이거 아닙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백성을 멸망시키지는 말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제 민족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영원히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고백했습니다 (출애굽기 32:31-32; 민수기 14:18-19; 로마서 9:1-5). 왜 이런 무모한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게 그건 줄 알았기에 이렇게 겁도 없이 과감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건지 분명히 알고 좀 세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 특히 그 평화가 먹고 노는 평화가 아니라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북한 동포에게 복음도 잘 전하기 위한 평화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이 될 때까지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안 풀어집니다. 긴장이 계속되면 계속되는 만큼 창조와 생산에 쏟을 수 있는 에너지를 소모적인 일에 써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도 안 좋아하십니다. 게다가 남북 사이에 긴장이 계속되는 한 북한 전도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북한 동포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열린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목소리를 높여야지요.

조국을 위한 우리 기도는 참 깁니다. 나라를 이웃나라에 빼앗긴 때부터 하면 벌써 백 년도 넘었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긴장 가운데 있는 조국을 위해 긴장 가운데 드린 기도만 해도 벌써 예수 해가 넘었습니다. 언제 북한이 마음을 고쳐먹고 문을 활짝 열어줄지, 언제 긴장을 접고 참 푸근한 마음으로 조국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갖고, 그 구원을 위해 무엇보다 평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넘치는 기쁨 가운데 들어주실 그 날을 바라보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오늘도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애써야 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

기도: 조국의 평화와 안정, 이명박, 김정은 위해, 지도자들 위해, 국민의 단합 위해, 교회 위해, 복음 전사 위해. 나 자신의 기도와 헌신 위해.